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 세계가 배운다

몽골 군수 연수단, 관광 정책 벤치마킹차 방문 오동도·해상 케이블카·고소 벽화마을 등 견학

“낭만의 도시” 여수의 관광정책을 배우기 위해 국내 지자체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는 21일 몽골 지방정부의 군수를 포함한 특별연수단이 관광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여수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널리 알려진 여수를 직접 찾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몽골 군수대표인 체엘 푸렙자브 등 연수단 14명을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수시 고재영 부시장은 징기스칸과 징기스칸광장, 이순신 장군과 이순신광장을 예로 들며 몽골과 여수의 유사성을 소개했다.

또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365개의 보석 같은 섬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경관 등을 소개하며 ‘관광도시 여수’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어서 김학섭 여수시 관광과장이 여수 관광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과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여수시가 역사적으로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의 구국 충절의 혼이 살아 있는 고장이라는 점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여수만의 맛과 멋 그리고 낭만을 테마로 펼치고 있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설명해 연수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설명회를 마친 몽골 연수단은 돌산공원,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이순신광장, 고소 천사 벽화마을 등을 견학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몽골 읍수도 올란곰군 체엘 푸렙자브 군수는 “여수관광의 높은 성장에 놀랐다”면서 “여수시의 관광정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체엘 푸렙자브 군수는 이어 “뜨겁게 환대해준 여수시에 감사를 표한다”며 “몽골에 돌아가면 아름다운 여수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몽골 군수 연수단 모두가 하나라도 배우려는 의지에 놀랐다”면서 “연수단이 여수관광의 교두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해마다 1천300만명 가량이 방문하는 관광도시 여수는 진달래축제, 거북선축제 등 대표적 관광축제가 있으며, 여수 밤바다와 함께 하는 ‘여수밤바다 낭만 버스킹’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일 밤 종포해양공원 일대 5곳에서 열린다.

특히 여름방학기간 열리는 여수 국제버스킹 페스티벌은 국내외 버스커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전세계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수=오승택 기자 ost600@



여수시의 관광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몽골 군수 연수단이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지난 19일 가사문학관에서 열린 '2019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최형식 군수가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을 주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 '지역민과 대화' 소통의 문 '활짝'

12개 읍·면 찾아 역점시책 공유·주민 건의사항 수렴

담양군이 민선 7기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한 '군민과의 열린 대화'가 지난 19일 가사문학관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 12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6일간 12개 읍·면을 찾아 마을 이장과 농가, 지역 원로 등 군민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최 군수는 △창조농업 지원센터 건립 △관내 RPC 통합 운영을 통한 담양 쌀 경쟁력 확보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부서별 일자리 지원센터 통합 기반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립전통정원센터 유치 및

정원특구 지정 등 올해 역점시책을 공유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담양군은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급한 사안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조치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군과 읍·면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상생토론회의 도입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최초로 일제의 잔재로 남아있던 방위 지명인 남면을 '가사문학면'으로 이름을 고쳐 선포하는 '가사문학면 선포식'도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lbst1@

목포 대기환경 개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다음달 8일까지 접수... 최대 3천만원

목포시가 2019년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4억 8천240만원을 투입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덤프트럭,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레미콘(콘크리트)펌프트럭 등으로 목포시에 2년 이상 등록

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본인 소유여야 한다. 또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아야 하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 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은 10%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목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목원동 트윈스타빌딩 4층에 위치한 목포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는 차량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2017년 261대, 2018년 330대의 노후 경유차량 폐차를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통해 도심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장성 이웃돕기 성금 쇄도

장성군의 희망을 밝히는 따뜻한 나눔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농업경영인 장성군연합회(회장 서춘경) 회원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 장성지점 설계경씨도 관내 어려운 이웃들과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200만원을 쾌척했다. 앞서 지난 13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국토순례단(회장 김문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장성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성금을 호남요양원에 지정 기탁했다.

/장성=정윤섭 기자 pius97@

순천시 '제1기 시민 암행어사' 위촉

순천시(시장 허석)는 청렴의 상징인 팔마비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순천시 시민암행어사 8명을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임명식을 가진 '시민암행어사'는 민선7기 첫 번째 시정 운영 목표인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만들어나가는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경쟁률 8대 1이 넘는 66명이 응모했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암행어사는 지역 행정과 실정에 밝고, 성·지역·분야별 대표성과 함께 주요 경력 등을 고려하는 등 반부패·청렴활동에 매우 적극적이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순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시민암행어사의 신분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하기 위



해 위촉식 없이 위촉장과 시민암행어사증, 시민암행어사패를 개별 전수하고, 시민암행어사 역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민암행어사는 시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한 불법·불편사항이나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 관련 부당행위, 공사 현장의 부실 등 각종 비위를 수집·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승택 기자 ost6002@

jndomin.kr

희망

을 배달하는 신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제, 스포츠 등
신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의 힘을 줍니다.

전남도민일보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T 062 227 0000 F 062 227 0084 www.jndomin.kr